

광주 39건·전남 105건...시·도민 생활안정 초점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市 복지·돌봄·청년·경제 등 6개 분야
道 민생 경제·미래성장 등 3대 방향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해부터 시·도민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춰 각각 39건과 105건의 제도·시책을 새롭게 시행하거나 확대·개편한다.

광주시의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년, 경제·일자리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6개 분야 39건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전국화를 앞두고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 소득 9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약사의 가정 방문 복약 서비스를 추가한다.

보훈명예수당을 인상에 생존 애국지사에게는 월 23만원(기존 월 21만5천원)을, 독립유공자 유

족 등에게는 월 8만원(기존 6만5천원)을 지급한다. 일반참전유공자 수당은 연령에 따라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한다.

아동수당은 대상 연령을 1세 확대해 9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10만5천원으로 늘린다.

모든 출생 가정에는 축하 상생카드 50만원권을 지급하며 2025년에 둘째 이상 아이를 출생한 가정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료 추가 지원사업은 기존 4·5세에서 3·4·5세로 대상을 넓히고 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오후 10시까지 야간 돌봄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에서 10개소로 대폭 증가했으며 문흥다함께돌봄센터는 자정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광서권(광산구·서구) 의료기관 대상 공개 모집을 통해 1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2개소와 광주 달빛어린이병원 4개소를 연계해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촘촘한 의료망을 만들 예정이다.

광주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 20~40대 경력단절여성·취업희망여성은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1대1 맞춤형으로 취업상담, 경력설계, 직업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시적 추진 후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지원은 지속 추진하고 지역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 경험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 지원을 확대해 청년안정망을 확보한다.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전국번호판 도입으로 더 크고 선명해진다. 번호판 크기를 21cm×15cm 규격으로 확대하고 관찰관청 표기를 삭제한다.

전남도의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7대 분야 105건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생활 안정, 미래성장 기반 확충에 주안점을 뒀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을 월 3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광양의 관련 기업에는 대출금리 3% 이차보전(최대 10억원)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추진하며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초소형 위성 개발 등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농업·축산 분야는 농가 경영 안정과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70만원으로 상향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연령을 80세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에는 청년을 포함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점심값의 20%를 지원한다.

해양·환경·산림 분야에서는 도서 지역을 순회하며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어복버스’를 운영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을 자망·부표·장어통까지 확대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에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9월5일부터 2개월간 개최하고, 연계 사업으로 ‘전남 섬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섬 반값여행과 숙박 할인 등을 추진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지원대상을 20세까지, 지원금은 연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영화 관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인구·여성 분야에서는 기존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개편해 시행하고 보호자 주소 요건을 완화한다.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2만원 상당의 먹거리 패키지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시행하며,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지원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안심병원을 지정해 의료비 감면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건설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환급 지원(K-패스)에 어르신 유형을 신설하고, 2억원 미만 주택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도민안전공제보험에는 운영·한평길한 진단비를 추가한다. /김재성·변은진 기자



남구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 광주 남구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68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서약식을 개최했다. <광주 남구 제공>

광주농기센터,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모집

23일까지...식량·원예 등 5개 분야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실증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5일부터 23일까지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실증을 통해 기술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확인된 기술을 지역 농업현장에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농가 생산성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이 기대된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총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 식량, 원예, 과수·치유도시농업, 청년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각 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실증 과정을 거쳐 기술의 효과성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우수 기술은 지역 농업현장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주소지와 시범사업장이 광주시로 등록된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 등이다.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후 1개월 내 자부담금을 통

장에 입금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와 광주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26년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관심 있는 농업인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늘봄학교 1-2학년까지 확대

국비 전환...年30회 국산 제철 과일 공급

전남도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지난 2일부터 국비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 명칭을 ‘어린이 과일간식’(사진)으로 변경하고 대상을 초등 돌봄교실에서 늘봄학교 1-2학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번 개편은 어린이가 학습만 개선과 국내산 제철 과일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한다. 교육·돌봄체계 개편에 맞춰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초등 돌봄교실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했으나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에선 늘봄학교(초등 돌봄교실+방과후 학교 통합) 1-2학년 학생에게까지 공급 범위를 확대한다. 어린이는 연간 30회, 1회 150g의 국산 제철 과일을 제공받는다.

사업 추진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도에서 일괄 선정하던 공급 업체를 앞으로는 시·군 단위에서 사업자를 공모 선정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국비사업 전환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교육·돌봄체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



히 국산 과일 소비 확대와 지역 농가 소득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해 365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2천190개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며 학생 건강 증진과 지역 농가 소득 기반 강화 등 2개 목표를 동시에 추진했다.

이번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의 지원 확대는 이러한 정책 흐름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킨 조치로 ‘지역 생산-학교 소비’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확고히 할 전망이다.

정원진 식량원예과장은 “전남의 우수한 과채류가 교육 돌봄체계와 연계되는 만큼 생산자·학교·지자체가 함께 상생하는 구조가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수익형 전원마을 담양송이마을 토지분양

[국내 최대 스마트팜 재배단지]

스마트팜 설비로 누구나 참송이버섯 재배 가능 | 참송이버섯 재배로 매월 안정된 소득

체류형 쉼터 / 세컨 하우스 / 주말농장 / 개인캠핑장 / 동·식물 관련시설 / 창고부지 등 입주가능

각 필지 8m도로 접. 토목공사. 기반시설.

250평 분양(전용율80%) 분양가 : 3.3㎡/45만원

기반시설 조성

재배사+관리사+휴게실(세컨하우스)

스마트팜 자동화시설

1:1재배교육(기술지도)

토지 분양가격 : 담양 최저가 3.3㎡당 50만원

1차 분양 입주완료
2차 토목공사 완료 - 선착순 위치선택

송이마을
전남 담양군 대평면 성곡리 31-6번지

☎ 062)222-0037 / H. 010-4323-5252

CMYK

+